

News / Issue

- 증권/파생상품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 6/15부터 유가증권,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 현행 15%에서 30%로 확대
 -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단계별 가격제한폭 도입, 장중 추가위탁증거금제도 도입
- 가격안정화장치 강화
 - 정적 변동성완화장치 도입 및 서킷브레이크 개선 등

Implication

- 가격제한폭 확대와 거래대금
 - 과거 상하한폭 확대 시기 회전을 상승 및 시총증가 맞물리며 거래대금 증가한 경험 있음
 - 다만 이는 당시 경기 및 주식시장 여건에 보다 의존적 (98년 IMF직후 경기 급반등, 2005년 주식시장 호조)
 - 최근 높아진 코스닥 회전을 감안시 단기적 거래대금 증가 가능성 있으나 지속성은 불명확
 - 가격제한폭 없는 서구권 주식시장의 경우 높은 기관투자자 비중 등으로 시가총액 회전을 낮은 수준
- 신용거래 관련 리스크관리 중요도 증가
 - 일률적 조치보다는 선별적(종목별 증거금을 차등 적용 등) 대응계획 가능성 높음
 - 높아진 신용잔고로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관리 중요도 높아질 전망

C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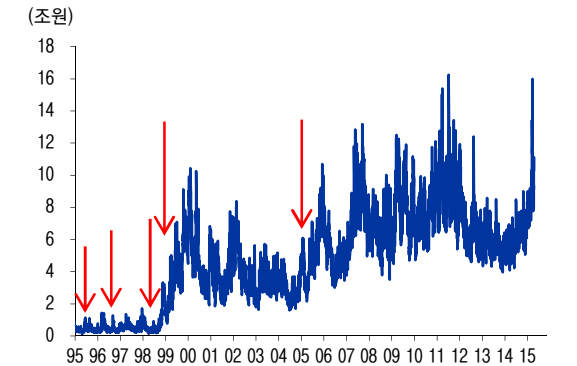
- 1 가격제한폭 확대와 거래대금의 인과관계
- 2 신용거래 안정성 확보가 관건

가격제한폭 제도 변천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95.4	6%	정액제
'96.11	8%	8%
'98.3~5	12%	12%
'98.12	15%	유지
'05.3	유지	15%
'15.6	3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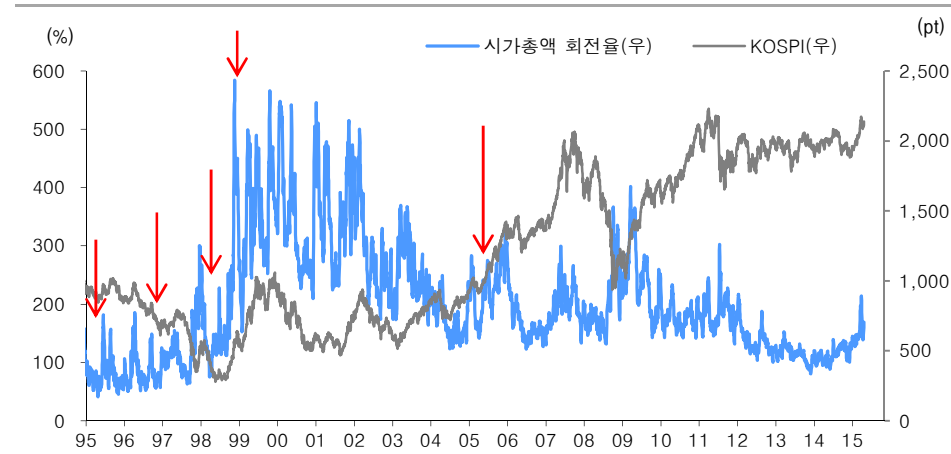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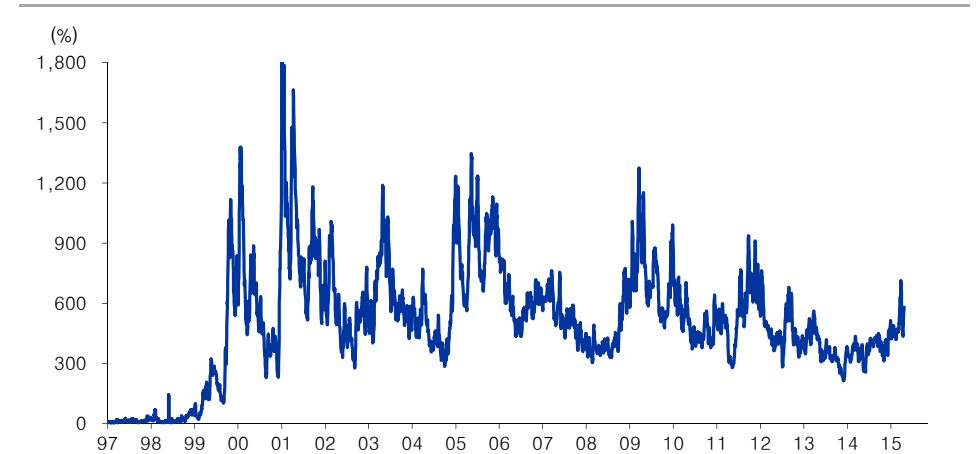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붉은색 화살표가 가격제한폭 확대시기

그림1 시가총액 회전율(KOSPI+KOSDAQ)과 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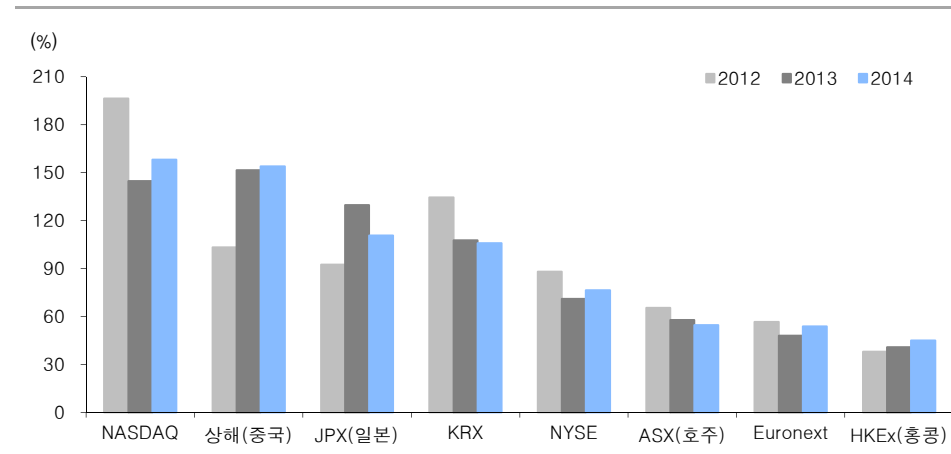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붉은색 화살표가 가격제한폭 확대 시기

그림2 KOSDAQ회전율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3 주요국 증시 시가총액 회전율



자료: 세계거래소연맹

그림4 고객예수금과 신용잔고



자료: 한국거래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N.R. (Not Rated)	20% 이상 기대 -20% ~ 20% 기대 -20% 이하 기대 등급보류	2015년 2월 2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4단계 (Strong Buy / Buy / Marketperform / Sell)에서 3단계 (Buy / Hold / Sell)로 변경